

# 도서관 장소 형성과 도서관 인식에 대한 해석 현상학적 접근

-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를 중심으로 -

## An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Library Place-Shaping and Perception of Libraries: Focusing on Student Users of Academic Libraries

김 단 호 (Danho Kim)\*

김 기 영 (Giyeong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및 결론 |
| 3. 연구 방법  |            |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를 중심으로 장소 형성 과정과 도서관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해석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되었으며, 개별 이용자는 심리적 욕구 충족을 경유하여 특정 장소를 선택하고 형성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맥락 요인들이 욕구 충족 과정에 작용함으로써 장소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된 복수의 장소 경험들이 통합되어 도서관에 대한 총체적 인식으로 발전함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place-shaping occurs and how perceptions of academic libraries are constructed, focusing on student users of academic librari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student users of academic libraries, and the data are analyzed using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The results are interpreted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indicating that individual users select and construct specific places to fulfill psychological need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different contextual factors shape place by influencing the process of need fulfillment, and that multiple place experiences are integrated into a holistic perception of libraries.

키워드: 장소, 장소로서의 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관 인식

Place, Library as Place, Academic Library, Perception of Libraries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danhokim@yonsei.ac.kr / ISNI 0000 0005 3031 4200)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kim@yonsei.ac.kr / ISNI 0000 0004 6110 992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315-336,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31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기술 발전을 비롯한 정보 환경의 변화가 물리적 도서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의와 함께, '장소로서의 도서관' 개념이 강조되었다(Shill & Tonner, 2003). 또한 정보제공원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뿐 아니라 학습, 휴식, 지식 생산 등 이용자 경험과 관련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이 대두되었다(Kim, 2016). 그러나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범위를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시키거나, 이용자의 경험보다 도서관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용자의 만족이나 충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장소의 이용 빈도나 만족의 강도, 영향력에 논의가 집중되었다(Cha & Kim, 2020; Noh, 2022).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관점에서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조명하고자 한다. 도서관 장소 경험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물질적 요소들뿐 아니라 경험 주체인 사람들도 의존한다. 도서관의 장소성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장소에 부가되는 사회적 맥락 및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장소 설계자가 의도한 특성과 개인의 현상학적 경험 및 장소성 인식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가 가지는 물리적·규범적 특성을 통한 도서관 운영 관점의 접근은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형성되는 과정 전반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와 해석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학생 이용자의 대학도서관의 장소 형성과 이를 통한 도서관 인식 형성을 탐색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장소(place)와 장소로서의 도서관 (library as place)

장소 개념은 다양한 학계(지리학, 사회학, 도시계획, 문헌정보학 등)에서 사용되지만, 장소에 대한 단일하며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Cresswell(2014)은 장소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며, 장소 개념에 접근하는 서술적, 사회 구성주의적, 현상학적인 세 가지 수준을 언급한다. 서술적 수준의 접근은 특정 장소의 독특함과 개별성에 집중하여, 장소의 특성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집중하였다(Sauer, 1925). 반면, 사회 구성주의적 수준의 접근은 장소가 권력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 집중하며, 장소 형성의 기저에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Harvey, 1996; Massey, 1994).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이 장소 형성의 구조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이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공간(space)과의 대조를 통해 장소를 개념화하였다. 공간은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된다(Merschdorf & Blaschke, 2018). 반면, 장소는 경험과 맥락에 기반하여 공간의 일부에 부여되는 주관적인 인간의 인식에 대한 개념이다. 이는 Tuan(1974)이 제시한 공간-장소 구분에 따른 것으로, 의미·경험이 부여된 공간을 뜻한다.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개념은 전자 자원의 확

대리는 배경 하에 도서관을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 활동의 중심지로 논의하였다(Shill & Tonner, 2003). 특히, LibQUAL+의 초기 문헌인 Cook et al.(2001)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의 핵심 차원으로서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제시했다. LibQUAL+은 5개의 항목을 통해 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이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Kim과 Park(2025)은 물리적 환경 특성들에 주목하여 도서관 공간서비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강유정과 이지연(2022)은 장소 이미지 요인과 새로운 장소 가치로 사회 공헌 가치를 이용해 공공도서관의 장소브랜딩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이정호(2011)는 장소애착 개념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가치 측정을 위해 이용자의 지불 의사 금액(willingness to pay)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들도 있었는데, 고영만 외(2014)는 이용 행태와 서비스의 혜택 인식을 측정해 대학도서관 서비스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노경국과 송기호(2025)는 대학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도구의 설계에서 서비스 범주 중 하나를 물리적 시설에 대한 지불 의사로 구성하였다.

한편,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복합적 기능, 역할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뤄져 왔다. Kim(2016)은 장소로서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다루며, 장소성의 차원을 정보 및 서비스, 열람 및 학습, 휴식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문화 행위를 위한 도서관 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서관의 장소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 Aabø와 Audunson(2012)은 사회적 자본과 Lofland의 공적 영역

논의를 기반으로, 만남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특성을 공적·지역적·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은 서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차용하여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들의 장소 인식 형성을 탐구한다.

## 2.2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로서의 대학도서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보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주로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Oldenburg와 Brissett(1982)의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는 집과 직장을 벗어난 공공 공간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는 도서관의 커뮤니티 센터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수용되어 왔다(Massis, 2010). 이외에도, Kranich(2001)는 정보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Pateman과 Vincent(2016)는 도서관을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도서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대학구성원의 학습·연구·협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특히 러닝커먼즈(Learning Commons) 개념이 학습·창조 공간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러닝 커먼즈는 대학도서관 내 설비나 자원뿐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술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Blummer & Kenton, 2017).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은 캠퍼스의 문화적 중심지이자 지적 활동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Freeman, 2005). 한편, 국내에서는 러닝커먼즈의 대두와 함께 공간 평가 측정 도구를 개발(장윤금, 2014)하였으며, 나아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활용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장윤금, 2018). 이나리와 박지홍(2022)은 서비스스케이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생이 학습공간을 선택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학습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서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서비스 모델이 등장하였다(Garcia, 2019; Igwe & Sulyman, 2022). 셀프서비스 모델은 도서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서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용자들이 특정한 장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한다는 특징을 가진다(Engström & Eckerdal, 2017). 셀프서비스 모델에 관한 논의들은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도서관 논의와 함께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적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Garcia, 2019).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간을 자료 접근 수단만이 아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한다. 특히 셀프서비스 모델에서 나타나듯, 이용자들은 사서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장소 경험을 구성하여 장소 인식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도서관을 자신만의 장소로 형성하는지 탐색한다.

### 2.3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자기결정 이론(SDT)은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위, 인식을 설명하는 거시 이론(Ryan & Deci, 2017)이며, 사람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통합·웰빙을 위해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가정한다(Ryan, 1995; Ryan & Deci, 2017). 이때, 자아(self)는 단순한 자아 개념이나 정체성을 넘어 현상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선택적으로 개입시키고 해석하여 행동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다(Ryan & Deci, 2017). 따라서 SDT는 개인이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승인하고 의지를 가지는 자율적인 행동 밑에 흐르는 경험을 중시한다.

SDT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Deci & Ryan, 2000). 자율성(autonomy)은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결정하고 지지하며, 행동의 기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욕구이다(Ryan & Deci, 2017). 이는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것과는 다르며, 개인은 타인을 따르더라도 타인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자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Ryan & Lynch, 1989). 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완수하며 숙달감을 느끼려는 욕구이다(White, 1959). 관계성(relatedness)은 타인이나 소속 집단과 연결되어 서로 배려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로, 사회적 가치나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Van den Broeck et al., 2016).

SDT에서 해당 욕구들의 충족은 개인의 행

위, 인식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Deci & Ryan, 2000; Van den Broeck et al., 2016). 개인의 욕구 충족은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이때 개인에게는 외부의 규제를 자이에 수용하는 내면화와 통합이 일어난다(Ryan & Deci, 2017; Vansteenkiste et al., 2018). 여기서 내면화와 통합은 외부의 가치나 사회적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그것들을 자신의 가치 체계와 일치하게 만드는 과정이다(Van den Broeck et al., 2016). 즉, SDT는 외부의 맥락, 규범들이 개인의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이 행위와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SDT에 기반하여 개인의 장소 형성이 어떻게 도서관 인식으로 확장되는지 해석한다. 이용자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장소 인식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맥락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 이러한 인식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SDT를 사용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목표 및 질문

본 연구는 장소를 이용자 개인의 반복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적 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이는 장소 개념의 현상학적 접근에 근거한 것으로,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개별 이용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맥락적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

은 다음과 같다. 장소는 개인이 특정 시공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형성된 특정 시공간에 대한 총체적 기억이다. 장소 경험은 이때의 반복적인 경험을, 장소 인식은 이를 통해 생겨난 인식을 지칭한다. 장소성은 특정 집단 혹은 사회 사이에 공유되는 장소에 대한 일정한 속성이다. 장소 선택은 장소 경험을 통해 본인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개인이 가진 기존의 장소 인식에 기반하여 장소를 선별하여 경험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의 귀납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장소 선택과 형성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수렴되었다. 첫째,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둘째, 장소 경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거나 조절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셋째, 다른 이용자 집단과의 동질감 혹은 이질감을 기반으로 특정 장소에 소속감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이 세 양상은 SDT의 세 가지 심리적 욕구 개념(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각각 부합하여, 본 연구는 SDT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론적 틀을 사전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귀납적 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욕구 충족의 양상은 이용자 개인의 특성만이 아닌 이용자를 둘러싼 맥락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맥락 요인 4개를 도출하였다. 또한, 특정 장소 인식과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별개의 층위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RQ1.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는 도서관 내 장소를 어떻게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욕구가 영향을 주는가?
- RQ2. 어떠한 맥락 요인들이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의 장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의 장소 형성이 대학도서관 인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RQ1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특정 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복적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로 형성해 나가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며, 동시에 장소 선택과 형성 과정에서 심리적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한다. RQ2는 그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맥락 요인들을 분석하여, 장소 형성의 조건과 과정을 탐색한다. RQ3은 개별적으로 형성된 복수의 장소 경험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통합되어 대학도서관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는지를 탐색한다.

###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학생 이용자의 장소

형성과 도서관 인식을 수집하기 위해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는 데이터 수집 과정 중에 이론적 틀을 참여자에게 투사하지 않고, 참여자 고유의 언어와 맥락으로 장소 형성 과정과 인식을 수집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목적적 표본 추출을 활용하여 장소 형성이 반복적인 장소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따라 대학도서관을 2년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학부생 8명과 대학원생 2명, A대학 7명, B대학 3명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이때, 두 대학도서관의 선정은 도서관 환경의 차이(공간 구성, 시설 조건, 장서량, 이용자 수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단일 환경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장소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상호보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고, 나아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인당 5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10명 중 9명은 대면, 1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

〈표 1〉 참여자 정보

ID	신분	성별	학교	인터뷰 진행 시간	인터뷰 진행 방식
01	대학생	남	A대학	59분 09초	대면
02	대학원생	여	A대학	40분 14초	비대면
03	대학원생	여	A대학	42분 29초	대면
04	대학생	여	A대학	50분 21초	대면
05	대학생	남	A대학	57분 17초	대면
06	대학생	남	A대학	49분 52초	대면
07	대학생	남	A대학	44분 29초	대면
08	대학생	남	B대학	56분 36초	대면
09	대학생	남	B대학	53분 07초	대면
10	대학생	남	B대학	65분 41초	대면

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되었으며, 이후 전문 전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비구조화 인터뷰의 특성상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되었으며, 연구자는 특정 이론적 개념이나 결과를 유도하지 않고 참여자가 도서관 이용 경험과 장소 형성 과정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가이딩 질문은 (1) 평소에 어떤 목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가, (2) 도서관 안에서 특별히 자주 가거나 즐겨 머무는 곳이 있는가, (3)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 3.3 데이터 분석

해석 현상학적 방법론(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은 질적 방법론 중 하나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Eatough & Smith, 2017). IPA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 해석학 과정인데,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

해하려고 노력하는 참여자를 다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Tuffour, 2017). 즉, 단순히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현상학적 세계에 부여하는 인식과 경험을 포착하는 것이다.

IPA는 비구조화 혹은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축여적으로 전사하고, 데이터를 여러 번 읽으며 참여자의 언어·은유·감정적 반응 등을 세밀하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Alase, 2017).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단어와 문장(부분)과 전체 인터뷰 내용(전체)을 끊임 없이 오가는 해석학적 순환을 활용하여 더 일반적인 주제로 추상화한다(Tuffour, 2017). 이후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편향을 줄이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해석과 비교·결합한다(Gorichanaz, 2017).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10개의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고, 녹취록에 대한 해석을 번갈아 진행하였다. 10개의 표본 크기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표본 수로 판단된다(〈표 2〉 참조).

〈표 2〉 IPA를 사용한 문헌정보학 혹은 장소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	연구 목적	연구 대상	표본 수
문헌정보학	Dowdell과 Liew(2019)	뉴질랜드 공공도서관이 노숙인의 정보 요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탐색	노숙인, 도서관 고위 관리자 및 직원	11명
문헌정보학	VanScoy와 Bright(2019)	인종적 정체성이 업무 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유색인종 사서	8명
문헌정보학	Terrile(2023)	노숙 경험이 있는 아동 및 가족과 작업하는 사서들의 정서적 경험과 직무의 의미를 탐구	여성 사서	5명
장소 연구	Shaw et al.(2016)	영국 추가 케어 주택이 노인에게 가지는 의미 조사	영국 추가 케어 주택 이주 노인	6명
장소 연구	Marinovic(2021)	점진적 주택이 주거자에게 가지는 의미 조사	베르데 점진적 주택 저소득층 한 가구	1가구

이후, 해석을 위해서 추출된 진술들 중 유사한 것들을 묶어 의미 단위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의미 단위 간 상호관계를 탐색하고 주제를 식별하였다. 식별된 주제들을 모든 참여자를 기반으로 반복하여 해석하고, 이를 선행 연구들을 비롯한 기존 이론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해석을 도출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IPA는 이용자나 사서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도 도서관 대상의 장소 개념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IPA를 채택하였다.

#### 4. 분석 결과

세부적인 분석에 앞서 참여자들의 장소 인식과 대학도서관 인식 전반을 살펴보면(〈표 3〉 참조), 첫째, 참여자들은 도서관의 공간을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장소로 인식하였다.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생에 비해 요구하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을 위한

요구는 주로 학습 환경에 집중되었다. 이외에도, 학부생들은 부분적으로 대학도서관을 학습을 위한 자료 탐색 장소로도 인식하였다.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요구하는 자료의 범주가 넓어 자료와 학습 장소들을 연결 짓는 경향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습, 연구와 관련된 장소 경험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다양한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엄격한 규범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을 나열하며 학습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대학도서관을 떠올렸다.

둘째, 여가로서의 독서 활동을 위한 장소라는 인식 또한 나타났다. 이는 A대학에 집중된 결과였다. B대학의 경우, 장서의 수·도서관의 규모 면에서 A대학보다 작았는데, B대학의 참여자들은 독서 활동을 위한 곳으로 대학도서관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대신, 지역 서점이나 공공도서관을 독서 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장소라고 진술했었다. 반면, A대학 참여자들은 대학도서관을 다양한 자료가 있는 장소로 인식하였다.

〈표 3〉 참여자들의 장소 인식과 도서관 인식

ID	신분	학교	특정 장소	대학도서관 전반
01	학부생	A대학	학습, 독서, 휴식	자료, 학습
02	대학원생	A대학	연구, 독서, 답소	다양한 분위기
03	대학원생	A대학	연구, 탐색, 일상	학업적 성취와 집중
04	학부생	A대학	학습, 휴식	학습, 자료
05	학부생	A대학	학습, 탐색	자료, 학습, 다양한 분위기
06	학부생	A대학	학습, 휴식	자료
07	학부생	A대학	학습	학습, 다양한 분위기
08	학부생	B대학	휴식, 학습	휴식, 학습
09	학부생	B대학	학습, 휴식	집결지, 학습
10	학부생	B대학	휴식, 학습	휴식, 학습

셋째, 일상생활·담소·휴식 또한 특정한 장소 인식에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이용 경험을 자신의 대학 생활의 일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인식에는 접근성이 주요한 이유로 꼽혔는데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 도서관의 장소들

장소는 물리적 공간 자체라기보다, 이용자의 반복적 이용 경험과 맥락적 필요, 규범이 중첩되면서 구성되는 인식적·관계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소들은 “시험 기간”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따라 그 인식이 바뀌기도 한다. “24시 열람실”처럼 도서관이 지정한 특정 명칭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열람실 창가 쪽 바 형태 좌석”처럼 개인의 주관에 따라 국소적으로 구획될 수 있다. 참여자는 도서관 전반에 대한 지칭이 아닌 “그곳”이라는 참여자 개인의 주관적 구획에 따라 도서관의 일부를 장소로서 인식한다.

“시험 기간 말고 평소에는 느낌이,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여기는 공부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기 24시(열람실)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좀 더 chill하죠. 분위기가 그렇게 압박감을 주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ID 04)

“창문이랑 딱 붙어 있는 그 바 형태의 직선(공간인) 그곳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중략)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갖춰진 느낌” (ID 03)

또, 장소 경험은 특정한 규범으로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담소가 가능”하다거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거나 다른 이용자가 있으면 “옆자리 예약”은 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규범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장소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공간”이라던가, “그곳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등의 형태로 특정 장소를 인식하였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같이 스티디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간단하게 담소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 (중략) 약간 소위 말하는 야자실 분위기이긴 한데 일단 노트북이 돼가지고서는 선호하고요 (중략) 이제 사람들도 보통 누구 있으면 그 옆자리 예약을 잘 안 하니까 그냥 혼자서 약간 쓴다라는 느낌으로도다가 그렇게 예약해서 써요.” (ID 02)

#### 4.2 욕구 충족에 기반한 장소 선택

##### 4.2.1 자율성

참여자들은 대학도서관의 일부분만을 자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인지하는 장소들 사이의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며, 상황에 따라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을 체감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며 그것들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들 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목적 추구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동선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

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동일한 목적임에도 서로 다른 장소성을 인식하고 선택하였다. 이때, 기존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곳들을 후보로 나열하였고, 그러한 인식된 장소들은 자신의 목적 추구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였다.

“다양한 분위기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막혀 있고 조금 정적이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오픈된 분위기에서 조금 소음도 좀 더 다양하게 들리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이런 데가 더 맞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략) 그런 다양한 곳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D 07)

특히, 특정한 목적이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구체화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이 참여자의 목적이라면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등의 규범·기능·분위기 등을 장소성으로 상정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장소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였다.

“뭔가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이런 000나 이런 데 가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때그때 사실 기분을 맞추고 약간 그때그때 오늘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좀 더 잘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는 것 같아요.” (ID 04)

#### 4.2.2 유능성

참여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유의미하게 장소 경험을 변화시키고 이로써 원하는 결과를 획득

하여 유능성을 충족하였다. 한 참여자는 시각적 노출에 따른 행위 제한이나 회피 심리를 느끼기도 하였다. “내 앞에 사람이 없고 창문이 있어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특정 장소를 선택하거나, 지나치게 “확 열려 있다는 느낌”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길게 이렇게 있는 데는 (중략) 창문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개방적인 것도 있고 누가 나를 감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잖아요.” (ID 04)

“4층에 거기 많이 간다 하는데 저는 잘 안 가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본격적으로 확 열려 있다는 느낌이라서 (후략)” (ID 01)

또한, 특정한 장소 내 규범에 따라 유능성이 좌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는 2층 자료실은 매우 조용하고 엄숙하여, 단순히 “취미로 책을 읽기에는 눈치”가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도서관 2층 자료실은 약간 너무 조용하고 엄숙 하다고 할까 뭔가 취미로다가 책 읽기에는 눈치 보이는 느낌이라 가지고 (중략) 2층 안에서는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ID 02)

참여자들은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요구를 보완함으로써 유능성을 얻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논문을 읽다가 개념적 지식이 부족할 때, 곧바로 도서관 서가로 내려가 단행본을 탐색하여 주변 지식을 브라우징하고 개념을 정

리하며 특정 장소에서 새롭게 발생한 요구를 채워나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였다.

“참고문헌 찾을 때 교수님들은 이제 논문 읽으라고 하지만 약간 저는 개념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중략) (6층에 있다가) 단행본 찾으러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책 한 권 읽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서가 간 다음에 그 책이랑 같이 주변 것 좀 브라우징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ID 02)

#### 4.2.3 관계성

참여자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특정한 집단과의 관계성에 따라 특정 장소를 자신이 속한 곳으로 형성하거나 회피하였다. 또한, 특정 장소 경험 속에서 자신이 인식하기에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보며 “동질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반대로, 이러한 감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집단과 자신 간의 이질감으로 인한 회피 또한 진술하였다. “결이 맞지 않는다”거나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등 자신이 자각하는 이용자 집단과 본인 간의 동질감에 따라 장소 인식이 달라졌다.

“0000를 잘 안 가는 이유는 (중략) 결이 굉장히 안 맞는다.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0000를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략) 5층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확실히 나이대가 비슷하고 (중략) 다들 열심히 뭔가 쓰고 있고 GPT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들 인생이 좀 피곤해 보이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ID 03)

참여자들은 관계에 대한 감각을 자원이나 혜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다들 열심히 하니 나도 잘 된다”는 식의 심리적 동조 현상을 이용하여 본인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정 심리에 대한 전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계속” 특정 행위에 대한 긍정적 동조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대열람실이 (중략)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더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D 05)

참여자들의 욕구 충족과 상반되지 않는 한 참여자 본인은 관계성에 대한 혜택으로서 이를 지각하고 내면화하여 장소 경험에 참여하였다. 집단의 태도 혹은 가치 판단을 수용하려는 경향성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Katz et al., 2017).

종합하면, 참여자들의 장소 선택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도서관의 장소들이 제공하는 선택의 폭과 분위기 속에서 자율성을, 환경을 조절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유용성을, 다른 이용자들과의 유사성, 동질감을 통해 관계성을 지각하여 특정 장소를 선택하거나 회피하였다. 따라서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어떤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경험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 같은 도서관이라도 이용자에게는 서로 다른 심리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가 부여되며, 이러한 욕구 충족의 양상은

특정 장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

#### 4.3 맥락에 따른 욕구 충족

맥락은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으로 이용자 집단 안에서 일정 수준 공유되고 일관되게 형성되는 집합적 문화를 설명한다. 개별 이용자는 같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일지라도 다른 장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의 장소 인식은 특정한 맥락 하에 유도되거나 공유될 수 있으며, 이는 도서관이 맥락을 통해 의도한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3.1 물리적 경관, 시설

특정한 가구나 건물의 구조와 같은 물리적 경관과 시설은 이용자들의 특정한 경험을 유도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경관과 시설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제공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특정 환경에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정 열람실의 “단기 대출 도서”나 “모니터” 등 특정 자료나 설비가 특정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시설에 대한 참여자의 과거 경험과 인식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칸막이”가 있는 6층 열람실은 참여자의 “고등학교” 시절을 연상시킴을 통해 “야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긴 호흡의 공부를 위한 장소 형성을 촉진하는 반면, 1층 로비는 그 개방된 구조를 통해 가벼운 과제나 팀 프로젝트, 답소를 나누는 행위를 촉진한다.

“사실 사람들이 2인석은 거의 다 안 쓰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모니터가 커요. (중략) 거기에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중략) 그리고 여기 6층 법학 도서에 단기 대출 도서가 있어서 (이용합니다).” (ID 01)

“아무래도 칸막이가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야자실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제 마음 셋업이 여기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다 (후략)” (ID 02)

Norman(2013)은 이러한 유도나 제한을 물리적 특성에 대한 행위 지원성으로 보고, 어떠한 물리적 구조 자체가 행위를 지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도서관의 인위적 제공물들이 특정한 행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소 경험과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3.2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장소를 대하는 방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장소 내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장소 내 규범에 대한 인식은 특정 이용자 혹은 명문화된 규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공동의 행위를 수행하는 집단적 수준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장소 경험에서 인식되는 타 이용자 집단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다른 장소에 비해 적합한 장소에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도 하였다.

어떤 참여자의 경우, ‘중양도서관 1층 열람실은 고시생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도서관의 의도 혹은 규정에는 없는 이용

자들의 관습을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고시생”이나 “시험 공부하는 학생” 등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을 특정한 장소성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장소 선택과 장소 내 행위의 지침이 일정 부분 마련되었다.

“CPA 수험생이나 로스쿨 수험생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24시 (열람실)에 (중략)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ID 06)

“거기 다 고시 준비하시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ID 04)

이처럼,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되는 내집단의 장소들을 더 빈번히 이용하고, 타 장소에 심리적 위협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Dixon et al., 2020).

#### 4.3.3 접근성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이용자가 특정 장소 경험을 얻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거나 계산하는 지불 가능한 노력의 총량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특정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를 “가깝기 때문”이라고 자주 진술하였는데, 이는 물리적 거리와 이동 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소 경험 중 보장된 시간의 제한과 경험의 최적화 측면도 있었다. 이를테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즉시성도 접근성에 포함된다.

“사실 대학도서관도 오는 이유가 그냥 가장 가까워서거든요. 항상 학교 있는데 가장 가까우니까

(후략)” (ID 03)

“굳이 도서관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서 편해서도 있지만 레포트 쓸 때에는 당장 참고문헌이 필요할 때 2층 내려가서 그냥 바로 보려고서는 도서관에서 하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ID 02)

때로는 참여자들은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쫓겨나듯 도피”한다거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해당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장소 경험 자체가 자신의 목적 달성까지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는 참여자들의 장소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었다. 참여자는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원하는 경험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 심리적 부담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소 선택들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목표로 하는 장소 경험을 충분한 시간 동안 보장받지 못할 때 해당 장소를 회피하였다.

“보통 11시에 대학원 열람실이 끝나면은 6층으로 쫓겨나듯 도피를 하게 돼요.” (ID 03)

“생각보다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중략) 학교를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ID 08)

장소 선택에 있어 공간·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Iacono et al., 2008). 또, 개인은 본인의 요구에 정확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해당 범주 내에 최적의 선택을 추구한다(Froehlich et al., 2006).

#### 4.3.4 관찰 가능성

특정 장소의 관찰 가능성은 개별 이용자의 장소 내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특정한 장소 경험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형태의 장소 인식을 강화한다. 참여자들의 장소 선택은 본인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또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남도 알 수” 있기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참여자가 지각하는 장소 내 규범과 다를 경우 “눈치”가 보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진술하였다.

“거기는 테이블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고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잘 보이니까 내가 뭘 하는지 남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ID 04)

“설 때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쉰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치 보이니까 이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공부도 안 하면서 저기 앉아 있지?’라고 생각하면 (후략)” (ID 10)

감시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이 특정한 형태의 상호작용만을 하도록 유도하며 그 외의 대안적 행위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학습시킬 수 있다(Smith & Walters, 2018).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시선 아래 움직일 때,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등이 행위를 제약한다(Shah & Kesan, 2007).

종합하면, 맥락은 이용자가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조건으로서, 심리적 욕구 충족의 양상을 구체화한다. 참여자들은 물리적 경관과 시설이 제공하는 행위가능성, 특정 이용자 집

단이 형성하는 사회적 정체성, 시간·거리·비용으로 환산되는 접근성,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규범을 지각하는 관찰 가능성은 심리적 욕구 충족을 지원하거나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를 형성하였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이라도 이용자의 목적과 환경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 형성은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학습되는 집합적 문화 속에서 일정한 규범과 기대를 형성하며, 결국 도서관의 특정한 유형의 장소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맥락에 따른 욕구 충족은 대학도서관의 장소 형성이 개별 이용자의 선택과 환경의 사회적 의미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나타낸다.

#### 4.4 장소 형성과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인식은 현재의 장소 경험이 과거 혹은 주변의 경험과 얼마나 가깝고, 어떤 의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동화되거나 혹은 대조를 통해 차별화되는 결과물이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도서관 내 특정 장소와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인식을 “진짜 도서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등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저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지만 도서관의 정체성은 책이 있는 곳이죠.” (ID 06)

“거기 책 읽는 공간이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략) 진짜 도서관 같은 부분은 사용을 안 합니다. 도서관이라 하면 보통 책 읽는 데나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ID 08)

새로운 장소 경험이 도서관 인식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경험적 틀(책, 조용함, DVD 등)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지 않은 경험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도서관 인식의 바깥에 머문다. 한 참여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검색 서비스는 도서관의 자료 탐색의 맥락과 연결되지 않아 도서관 인식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좌석 예약 서비스는 학습 공간의 맥락에서 도서관 인식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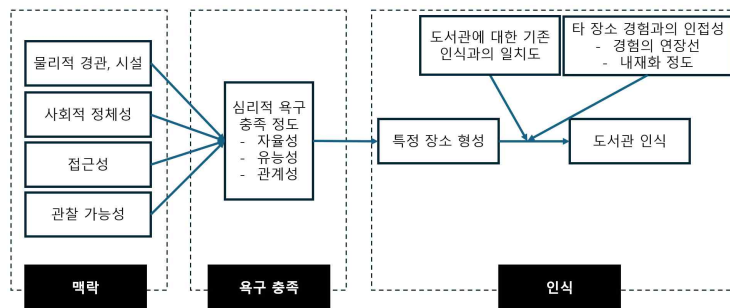
“여기서 막 핸드폰으로 자리 잡고 막 애들 가서 하고 (중략) 아무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한테는 그 공간적인 게 도서관 공간에 대해서 생각했지 사실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도서관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ID 07)

“CD도 많고 막 영화 이런 예전에는 넷플릭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중략) 그런 게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있어요, 이제 여기에 그런 도서관 모먼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ID 04)

경험이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한다(Snyder et al., 2015). 사람의 장소 형성은 맥락 의존적이며, 새로운 장소 경험은 기존의 경험적 틀 안에서 포함되거나 배제된다(Blaison & Hess, 2016).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용자가 특정 장소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것이 도서관 인식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와 IPA를 통해 탐색하고, SDT에 기반하여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이라는 단일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욕구 충족에 따라 여러 장소들을 형성하였으며, 심리적 욕구 충족은 물리적 경관, 사회적 정체성, 접근성, 관찰 가능성이라는 맥락 요인들에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형성된 장소들은 이용자의 기존 경험 및 연상과 의미적으로 연결될 때 도서관 인식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욕구 충족, 그리고 인식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1> 장소 형성과 도서관 인식에 대한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장소는 도서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구성하는 경험적 산물이다. 장소는 도서관이 일방향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 구축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동일한 물리적 공간이라도 이용자의 목적·경험·욕구 충족에 따라 다르게 장소가 인식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는 경험의 변화에 따라 장소 인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장소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반복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특정 성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경험 과정을 통해 유도되는 종속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장소 연구가 주로 물리적 환경이나 도서관의 제도적 제공물 중심으로 장소성을 논의해 온 것과 달리, 이용자의 주관적·경험적 구성 과정을 장소 형성의 핵심 기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도서관이 공간의 물리적 설계뿐 아니라 이용자의 장소 경험 자체를 고려해야 하며, 도서관 공간 기획과 평가의 기준은 특정 물리적 환경 조성이 아닌 이용자 경험 설계부터 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맥락 요인은 장소를 보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장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지만, 이용자의 목적과 맥락 요인에 따른 특정한 장소성 또한 발견되었다. 도서관은 특정 이용자 집단의 목적과 욕구 충족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맥락 요인을 조성하여 원하는 장소성을 유도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뿐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유도하는 맥락 요인 전반이 운영의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도서관 인식은 개별 장소 경험의 집합이 아니라 경험들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공간이더라도 본인의 기존 도서관 경험 및 인식과 의미적·맥락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도서관 인식의 일부로 통합하지 않았다. 이는 도서관 인식이 경험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경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통합되는가에 따라 구조화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인식 형성을 개별 서비스나 공간 평가 결과로 환원하는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며, 경험들 간 연속성과 통합성이 인식 형성에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관계적 경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설계가 장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공동 경험을 유도하는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도서관의 장소성을 유도하는 기능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정보 제공이나 이용률 제고의 수단으로 기획하기보다, 이용자의 관계적·반복적 경험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관계와 기억이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경험의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공간 설계,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도입의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장소 형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제시된 모형을 실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화 가능성과 변인 간의 상대적 효과는 향후 실증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 장소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유정, 이지연 (2022). 공공도서관의 장소브랜딩을 위한 장소이미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129-159.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129>
- 고영만, 표순희, 심원식, 황욱, 정혜경 (2014).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혜택에 대한 인식이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29-343.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329>
- 노경국, 송기호 (2025).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79-102.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79>
- 이나리, 박지홍 (2022). 대학생의 학습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9(2), 61-86.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2.061>
- 이정호 (2011).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9-234.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209>
- 장윤금 (2014).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및 평가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4), 229-248.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229>
- 장윤금 (2018).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425-446.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425>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 138-149. <https://doi.org/10.1016/j.lisr.2011.06.002>
- Alase, A. (2017). The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a guide to a good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Literacy Studies*, 5(2), 9-19. <http://dx.doi.org/10.7575/aiac.ijels.v.5n.2p.9>
- Blaison, C. & Hess, U. (2016). Affective judgment in spatial context: how places derive affective meaning from the surrou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7, 53-65. <https://doi.org/10.1016/j.jenvp.2016.05.005>

- Blummer, B. & Kenton, J. M. (2017). Learning commons in academic libraries: discussing themes in the literature from 2001 to the present.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23(4), 329-352. <https://doi.org/10.1080/13614533.2017.1366925>
- Cha, S. H. & Kim, T. W. (2020). The role of space attributes in space-choice behaviour and satisfaction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2(2), 399-409. <https://doi.org/10.1177/0961000618794257>
- Cook, C., Heath, F. M., Thompson, B., & Thompson, R. L. (2001). The search for new measures: The ARL LibQUAL+ project-a preliminary report. *Libraries and the Academy*, 1(1), 103-112. <https://doi.org/10.1353/pla.2001.0003>
- Cresswell, T. (2014). *Place: An Introduction* (2nd ed.).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Dixon, J., Tredoux, C., Davies, G., Huck, J., Hocking, B., Sturgeon, B., Whyatt, D., Jarman, N., & Bryan, D. (2020). Parallel lives: Intergroup contact, threat, and the segregation of everyday activity sp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3), 457-480. <https://doi.org/10.1037/pspi0000191>
- Dowdell, L. & Liew, C. L. (2019). More than a shelter: Public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needs of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1(4), 100984. <https://doi.org/10.1016/j.lisr.2019.100984>
- Eatough, V. & Smith, J. A. (2017).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In Willig, C. & Stainton-Rogers, W.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nd ed.). London, UK: SAGE Publications, 193-209.
- Engström, L. & Eckerdal, J. R. (2017). In-between strengthened accessibility and economic demands: Analysing self-service libraries from a user perspective. *Journal of Documentation*, 73(1), 145-159. <https://doi.org/10.1108/JD-02-2016-0013>
- Freeman, G. T. (2005). The library as place: Changes in learning patterns, collections, technology, and use. In Freeman, G. T., Bennett, S., Demas, S., Frischer, B., Peterson, C. A., & Oliver, K. B. eds. *Library as Place: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1-9.
- Froehlich, J., Chen, M. Y., Smith, I. E., & Potter, F. (2006). Voting with your feet: An investig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visit behavior and preference. In Dourish, P. & Friday, A. eds. *UbiComp 2006: Ubiquitous Computing*. Berlin: Springer, 333-350.

- Garcia, M. B. (2019). Human-library interaction: A self-service library management system using sequential multimodal interface. 2019 IEE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Nan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 and Control, Environment, and Management (HNICEM), Laoag, Philippines.  
<https://doi.org/10.1109/HNICEM48295.2019.9073499>
- Gorichanaz, T. (2017). Auto-hermeneutic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information exper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9(1), 1-7.  
<https://doi.org/10.1016/j.lisr.2017.01.001>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Iacono, M., Krizek, K., & El-Geneidy, A. (2008). Access to Destinations: How Close is Close Enough? Estimating Accurate Distance Decay Functions for Multiple Modes and Different Purposes (2008-11). 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Igwe, K. N. & Sulyman, A. S. (2022). Smart libraries: Changing the paradigms of library services. *Business Information Review*, 39(4), 147-152. <https://doi.org/10.1177/02663821221110042>
- Katz, E., Lazarsfeld, P. F., & Roper, E. (2017).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NY: Routledge.
- Kim, J.-A. (2016). Dimensions of user perception of academic library as plac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5), 509-514. <https://doi.org/10.1016/j.acalib.2016.06.013>
- Kim, S. & Park, J.-H. (202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bSCAPE: A comprehensive scale for measuring library space servic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8(2), 799-811. <https://doi.org/10.1177/09610006251339829>
- Kranich, N. (2001). Libraries, the internet, and democracy. In Kranich, N. eds. *Libraries and Democracy: The Cornerstones of Liberty*,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83-95.
- Marinovic, G. I. (2021). Belonging to place: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incremental housing. *Arquitectura, Ciudad y Entorno (ACE)*, 16(46), 9706.  
<https://doi.org/10.5821/ace.16.46.9706>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ssis, B. E. (2010). The academic library becomes the academic learning commons. *New Library World*, 111(3-4), 161-163. <https://doi.org/10.1108/03074801011027664>
- Merschdorf, H. & Blaschke, T. (2018). Revisiting the role of place in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7(9), 364.  
<https://doi.org/10.3390/ijgi7090364>

- Noh, Y. (2022). The analytic study of librarian-user and importance-satisfaction on the use factor of complex cultural space in library. *Library Hi Tech*, 40(6), 1532-1566.  
<https://doi.org/10.1108/LHT-06-2020-0135>
- Norman, D. A. (2013).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Rev. ed.). Cambridge, New York, NY: Basic Books.
- Oldenburg, R. & Brissett, D. (1982). The third place. *Qualitative Sociology*, 5(4), 265-284.
- Pateman, J. & Vincent, J. (2016). *Public Libraries and Social Justice*. New York, NY: Routledge.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5.tb00501.x>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2), 340-356.  
<https://doi.org/10.2307/1130981>
- Sauer, C. 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19-54.
- Shah, R. C. & Kesan, J. P. (2007). How architecture regulate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24(4), 350-359.
- Shaw, R. L., West, K., Hagger, B., & Holland, C. A. (2016). Living well to the en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life in extra care 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1(1), 31100. <https://doi.org/10.3402/qhw.v11.31100>
- Shill, H. B. & Tonner, S. (2003). Creating a better place: Physical improvements in academic libraries, 1995-200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4(6), 431-466.  
<https://doi.org/10.5860/crl.64.6.431>
- Smith, N. & Walters, P. (2018). Desire lines and defensive architecture in modern urban environments. *Urban Studies*, 55(13), 2980-2995. <https://doi.org/10.1177/0042098017732690>
- Snyder, J. S., Schwiedrzik, C. M., Vitela, A. D., & Melloni, L. (2015). How previous experience shapes perception in different sensory modalitie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9, 594.  
<https://doi.org/10.3389/fnhum.2015.00594>
- Terrile, V. C. (2023). It's meaningful work, but it's "really, really hard": Librarians' understanding of their work with families experiencing homelessness. *Library Quarterly*, 93(3), 333-351.  
<https://doi.org/10.1086/725066>
- Tuan, Y.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uffour, I. (2017). A critical overview of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A contemporary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Journal of Healthcare Communications*, 2(4), 52.  
<https://doi.org/10.4172/2472-1654.100093>
- Van den Broeck, A., Ferris, D. L., Chang, C. H., & Rosen, C. C. (2016). A re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work. *Journal of Management*, 42(5), 1195-1229.  
<https://doi.org/10.1177/0149206316632058>
- VanScoy, A. & Bright, K. (2019). Articulating the experience of uniqueness and difference for librarians of color. *Library Quarterly*, 89(4), 285-297. <https://doi.org/10.1086/704962>
- Vansteenkiste, M., Aelterman, N., De Muynck, G.-J., Haerens, L., Patall, E., & Reeve, J. (2018). Fostering personal meaning and self-relevan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internaliz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6(1), 30-49.  
<https://doi.org/10.1080/00220973.2017.1381067>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https://doi.org/10.1037/h004093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Yunkeum (2014). A study of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and their assess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29-248.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229>
- Chang, Yunkeum (2018). Aligning academic library makerspaces with digital literacy education spa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425-446.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425>
- Kang, Yu Jeong & Lee, Jee Yeon (2022). Study on the place image factors for place branding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129-159.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129>
- Ko, Young Man, Pyo, Soonhee, Shim, Wonsik, Hwang, Uk, & Jung, Hye-Kyung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user's use pattern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vice benefits on the value assessments of university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29-343.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329>
- Lee, Jeong-Ho (2011). A study on the impact of user's place attachment on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09-234.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209>

Lee, Nari & Park, Ji-Hong (2022).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choice of learning space: Recommendations of effective space arrangement for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2), 61-86.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2.061>

Noh, Kyoung-kuk & Song, Gi-Ho (2025). A study on developing tools for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university librar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1), 79-102.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79>